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해방신학자 신부

김 현 군

1983년 3월 4일. 이글거리는 마나과 국제공항. “하느님과 혁명 덕분에 자유를 얻은 니카라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무겁게 트랩을 내려선다. 잠시 후 흰 옷 차림의 한 신부가 활주로에 무릎을 꿇고 교황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한다. 교황은 집게손가락으로 신부를 가리키며 굳은 얼굴로 호통친다. “너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신부는 야릇한 미소를 띤 채 교황을 올려다본다.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이 일화의 주인공은 니카라과의 시인 에르네스토 카르데날(Ernesto Cardenal)이다. 그는 사제 신분이 아니라 산디니스타 정부 초대 문화장관의 자격으로 교황을 영접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벌어진 이 장면은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원칙만을 고수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보수주의적 성향과 해방신학자 카르데날의 혁명가적 면모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준다. 당시 교황의 태도는 혁명을 통해 좌파정권을 수립한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요, 보다 직접적으



1983년 3월 4일 마나과 공항에서 영접 나온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에게 호통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로는 교회법을 어기고 혁명정부의 관직에 오른 기독교적 마르크스주의자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그러나 교황이 집전한 야외미사에서 더 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광장에는 40도가 넘는 피약별 아래 니카라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0만 명의 엄청난 군중이 운집해 있었다. 교황은 강연에서 니카라과를 “제2의 폴란드”로 언급하며 혁명을 비판하고 혁명에 가담한 신도와 사제들을 공격한다. 환호를 보내던 군중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점차 박수소리가 잦아든다.

콘트라 반군과의 내전에 시달리던 니카라과인들은 혁명을 공격하던 교황에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외친다. 교황은 정치 구호를 압도하기 위해 성난 듯이 목소리를 높였고 항의하는 군중들을 향해 “조용히 하시오”를 되풀이한다. 급기야는 “우리는 인류의 적 양키에 맞서 투쟁한다”는 가사가 들어 있는 산디니스타 찬가가 광장에 울려 퍼지고, 가까스로 미사를 마친 교황은 곧장 공항으로 향한다. 전 세계의 언론은 일제히 신성모독 뉴스를 타전한다. 실제로 현대사에서 교황이 군중들에게 그런 굴욕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피장파장이다. 카르데날이 어느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니카라과 정부와 군중은 교황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고, 교황에겐 니카라과 민중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었다.

한편, 1979년 반독재투쟁으로 소모사 족벌체제를 무너뜨리고

좌파 혁명정권을 수립한 이후에도 니카라과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는다. 카르데날이 고대하던 평화로운 유토피아는 온데간데없고 니카라과는 경제적, 사회적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든다. 또 산디니스타 지도자들은 민중들의 희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독재자 소모사의 전철을 밟는다. 부패와 인권유린, 권위주의로 얼룩진 그들의 민주주의는 타락한 민주주의였고, 그들의 혁명은 미완의, 잃어버린 혁명이었다. 카르데날은 1988년까지 문화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니카라과를 ‘영혼 없는 나라’로 몰고 가는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과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산디니스타들은 레이건 정부의 콘트라 반군 지원으로 집권기간 내내 내전에 시달린 끝에 1990년과 1996년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다. 그리고 ‘니카라과 혁명의 문화적 상징’이었던 카르데날은 다니엘 오르테가의 권위주의적 지도 행태를 비판하며 1995년 1월 FSLN에서 탈퇴한다.

산디니스타들이 권력을 잃은 후인 1996년 다시 니카라과를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번과 같은 장소에서 거행된 미사에서 산디니스타 집권기를 “어두운 밤”으로 부르며 과거에 그가 받았던 모욕을 고스란히 되돌려주었다. 자신을 저격한 테러범을 용서하기 위해 로마의 감옥을 찾아갈 만큼 ‘관대한’ 교황이었지만 산디니스타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6년 11월, FSLN의 후보 다니엘 오르테가는 세 번째 도전 끝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16년 만에 극적으로 귀환했다. 한편, 카르데날이 지지한 산디니스타혁신운동(MRS)의 에드문도 하르킨 후보는 6%대의 저조한 득표율로 참패한다. 그리고 2007년 7월 19일 혁명 28주년을 기념하여 마나과의 ‘요한 바오로 2세 광장’에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다. 또 지난 4월 20일에는 파라과이 대선에서 페르난도 루고 전 가톨릭 주교가



2006년 선거전에서 유세하는 다니엘 오르테가

콜로라도당의 61년 장기집권을 종식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루고는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주교에 임명되었다.

과거의 영웅 다니엘 오르테가가 돌아왔지만 카르데날의 조국 니카라과의 미래는 안개속이다. 새 천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아이티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최빈국에 속하며 끊임없는 스캔들로 정치적으로 고갈된 나라다.

1990년 대선 패배 후 카르데날은 “산디니스타 정권은 결국 실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나는 니카라과 민중들이 산디니스타 정권을 통해 하늘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잠깐 본 하늘은 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이며 그것은 훗날 다시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실천무대였던 솔렌티나메(Solentiname)에서 펼쳤던 이상을 카르데날이 여전히 꿈꾸는 이유다. 솔렌티나메는 그가 1966년 니카라과호(湖)의 한 섬에 세운, 예술가, 작가, 농부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공동체였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카르데날은 그의 대표 시집 중의 하나인 『의심스러운 해협』(1966)을 쓴다. 제목에서부터 16세기 스페인인들의 환상에서 출발해 니카라과운하 프로젝트, 파나마운하로 구체화되어온 대양 간 항로의 탐색과 그 역사적 결과가 서사의 중심임을 환기시키는 이 시에는 중앙아메리카의 피의 역사를 수놓았던 일련의 영웅적 인물들과 반영웅적 인물들이 대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칸토 24」와 「칸토 25」에 등장하는 안토니오 데 발디비에소 주교는 카르데



솔렌티나메 화가 페르난도 알타미라
노의 작품.

날이 걸어온 길과 관련하여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니카라과를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발디비에소 주교는 시에서 페드라리아스 다빌라나 소모사 같은 악명 높은 독재자들과 대비되는 영웅적 인물로 그려진다. 발디비에소 주교는 레온에서 에르난도 데 콘트레라스에 의해 살해되는데, 타락한 사회에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순교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시킨다. 그는

카르데날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기리며』(1969)에서 노래하는 역설적 존재, 즉 들풀처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죽지 않는 죽은 자들”에 속한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원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톨릭 신앙을 통해 권력에 저항했던 이 역설적 존재의 영웅적 승리가 그려진다. 안토니오 데 레메살 신부의 『서인도의 일반사』에서 영감을 얻은 에피소드는 “하느님의 종” 발디비에소 주교가 암살된 저주받은 도시 레온의 파문을 묘사한다. 신의 심판을 받은 레온은 지진으로 파괴된다. 그러나 도시의 폐허더미 속에서 구원의 신호가 나타난다. 시는 살해당한 발디비에소 주교의 피투성이 손자국으로 얼룩진 벽의 이미지와 더불어 끝나는데, 이는 주교에게 가해진 폭력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악으로부터 도시를 구원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는 복수의 신호이기도 하다. 마야에 새로운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칠람 발람』의 예언(「칸토17」)은 이렇게 실현된다. 이제 발디비에소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 중앙아메리카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연계시키는 매개로서 ‘지상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인물이다. 현재의 행위는 과거에 다른 존재들에 의해 실현된 행위의 흔적을 투명하게 비춰준다는 믿음, “우리는 역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 있다”는, 즉 “우리가 곧 역사”라는 믿음을 온몸으로 지켜온 카르데날은 또 다른 발디비에소다. 마추픽추의 유적 앞에서 “[잉카의] 죽은 왕국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노래했던 네루다처럼, 또 삶은 영원히 되풀이된다고 생각했던 마야인들처럼, 카르데날은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믿는다. 이러한 역사관은 그가 평생에 걸쳐 천착했던 기독교의 영생 개념과도 상통한다.

“누구도 자신의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쿠바의 시인이자 혁명가인 호세 마르티의 말이다. 여든을 훌쩍 넘긴 지금 이 순간에도 카르데날은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의 반세계화 투쟁의 현장에서, 아르헨티나 오월광장어머니회의 30주년 기념식장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며 마르티의 선언적 명제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김현균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저역서로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 (공저), 『인어와 술꾼들의 우화』 등이 있다.
